

# “취업 급하니 노크해볼까”... 청년구직자 70%, 中企 고려

## 중기중앙회 청년 1200명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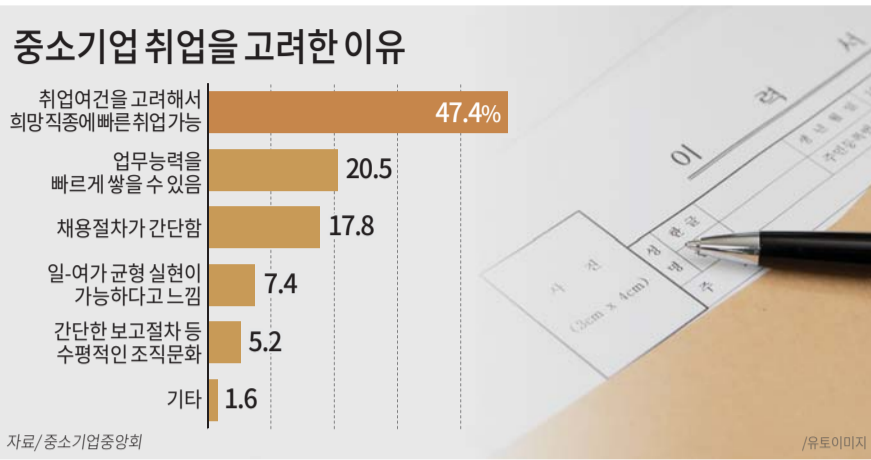
희망 직종 취업 빨라 '장점' 1위  
기피 이유 낮은 연봉·워라밸 등  
연령 높을수록 中企 고려 많아

청년 구직자 10명 중 7명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직종에 빠른 취업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이유는 '낮은 연봉'이 1순위로 꼽혔다.

이런 가운데 청년 구직자가 생각하는 취업 후 첫 해 연봉수준은 '2500만~3000만원'이 가장 많았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내놓은 '2022년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결과'에서 나왔다.

중소기업 취직을 '고려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73.4%가 '그렇다', 26.6%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취직을 고려한 이유로는



▲취업 여건을 고려해 희망 직종에 빠른 취업이 가능하다(47.4%) ▲업무능력을 빠르게 쌓을 수 있다(20.5%) ▲채용 절차가 간단하다(17.8%) 등이 주요 이유였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연령이 높을수록(30대 이상·79.4%), 근로경험이 있을수록(82.8%)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중소기업 취업을 생각하지 않은 이유로는 '낮은 연봉 수준'이 31%로 가

장 많은 가운데 '업무량과 근로 시간이 과도해 일-여가 균형 실현이 어렵다고 느낀다'도 28.2%로 적지 않았다. '고용 불안정에 대한 우려'도 19.1%에 달했다.

청년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첫 해 연봉수준에 대해선 36.6%가 '2500만~3000만원'을 꼽았다.

'3000만~3500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27.8%로 꽤 많았다.

근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엔 '3000만~3500만원'(32.7%)을 가장 많

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청년들이 구직자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1순위가 '일과 여가의 균형 보장'(33.2%)이었다. 이외에 '임금만족도'(22.2%), '건강한 조직문화·사내 분위기'(15%)가 그 뒤를 따랐다.

채용 방식 관련 조사에선 '공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컸다.

응답 청년의 61.8%는 현재의 서류·면접 위주 채용 시스템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는 '적절하다'는 답변(38.2%)보다 1.6배나 많았다.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채용 절차 단계로는 '대면 면접'(37.7%)과 '서류단계'(33.6%)를 많이 꼽았다. '필기시험'이 어렵다는 답변은 16.3%에 그쳐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울러 청년 구직자들이 최근 구직활동 가운데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불안'이 72.2%로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무기력'(47.5%), '우울함'(42%), '좌

절감'(34.8%)도 적지 않았다.

특히 취업 준비 기간이 1년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무기력, 우울함, 좌절감, 후회 등의 감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청년 구직자가 느끼는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으로는 '기업 정보 입수'(29.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조직 문화, 기업 안정성, 퇴사율, 근로조건 등 다양한 기업 정보를 제시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MZ세대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기계발, 워라밸, 공정한 채용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일자리 인식도 엿볼 수 있었다"면서 "중기중앙회는 공정한 채용 시스템 등 좋은 조직문화를 가진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널리 알려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한화진 장관에 '환경규제 해소' 전달  
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해소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대표적인 환경규제로 ▲신규화학물질 등록부담 완화 ▲영세사업장 대상 화관법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 ▲포장재 평가기준 추가 법안 철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물탄산화 CCU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왼쪽부터)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 이영, 소상공인 업계와 '소통·협력' 약속

(중기부장관)

정책나눔협의회 열고 정책방향 논의  
"디지털 소상공인 성공모델 연내 창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소상공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상공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연내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중기부 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나눔협의회 자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최근 금리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기부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손실보전금 등(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한 그간 조치를 신속히 집행하고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적인 방안들을 업계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빠르면 오는 7월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가장 첫 번째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종합대책 1호를 내놓게 되는 셈이다.

중기부에선 이 장관과 함께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이 참석한 이날 정책나눔협의회 자리엔 업계에선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이 참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오후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회·단체를 초청해 '소상공인 정책나눔협의회'를 열었다. (왼쪽부터)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영 중기부 장관,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석했다.

7월 내놓을 종합대책에 앞서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소상공인 분야 협·단체들의 정책 제안을 경청하기위해 만든 민간 소통자리 성격이다.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재기방안 마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시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통한 근로시간 한도 유연화 등을 중기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수(689만개)의 93.3%를 차지하는 644만개에 달한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43.7% 수준이다. 사업체 10곳 중 9곳 정도가 소상공인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오세희 회장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연계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폐업지원금의 확대, 재기를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중인 내년 최저임금과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환경도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된다.

소상공인업계에선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지역별 차등화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도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업계 목소리를 담아 최저임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선 내달 발표할 종합대책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KCC, '선박도료 기술력' 전세계 선보

세계 최대 조선해양 전시회 참가

KCC가 6일부터 10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조선해양 전시회 '포시도니아(POSIDONIA) 2022'에 참가해 우수한 기술력이 반영된 선박도료를 선보였다.

14일 KCC에 따르면 포시도니아는 1978년부터 격년으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선박·관련 기자재 전시회다.

올해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1800여 개 업체가 참가했다. 세계 굴지의 조선소와 선박도료업체, 항해장치, 선박 엔진 등 각종 선박 기자재 업체들이 최신 기술, 소재, 장비 등을 선보이며 컨퍼런스,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

올해로 포시도니아에 8번째 참가하는 KCC는 이번 전시회에서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방오도료의 신제품 라인업과 방청 도료, 상도 도료 제품군 소개에 주력했다. 선박 시장의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기술력 우위를 강조하는 홍보활동을 펼쳤으로써 신규 고객사들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KCC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고객사와 직접 소통하며 요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KCC의 선박 도료 브랜드와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공군 이종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 1심보다 2년 줄어 /사진 뉴시스  
▲ 서울의소리,尹 대통령 자택 앞 '맞불 집회' 개최

▲ 우체국택배노조 18일 경고 파업... "우정본부 대화 나서야"  
▲ 확진자 닷새 연속 1만명 밑... "17일 격리 해제 여부 발표"



▲ 수업시간에 교사 찢은 고교생 "살해 고의는 없었다"  
▲ 단비 뿌렸지만 해갈엔 역부족... 가뭄, 7월까지 이어진다 /사진 뉴시스